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4월 12일(금)
(윤력 3월 4일)

Пятница

12 апреля 2024 г.

№ 14 (1208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4월 12일은 우주 비행의 날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 공원.

(이예식 기자 촬영)

쿠나쉬르섬에 '학교-유치원'종합학교 개교

쿠나쉬르섬 남부 골로브니노 마을에 새로운 '학교-유치원' 종합 교육시설 개교식이 열렸다. 종합 교육시설은 쿠릴열도개발 연방 프로그램 추진의 일환으로 건축되었다.

골롭니노 마을과 이웃한 두보워에 마을의 학생들이 다닐 종합 교육기관에는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와 식품조리실, 식당, 강당, 체육관을 비롯해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잘 갖추어진 그룹들과 산책을 위해 난방이 되는 배란다가 있다. 이 구역에는 부드러운 매트가 깔린 운동장,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육상 트랙과 체력단련 구역이 마련되어 있다. "지역 주민들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교육기관의 명칭을 러시아의 유명 항해사인 표트르 리코르도의 이름을 따온 것은 매우 중요하다. 19세기 초 그는 특별히 쿠릴열도 남부에 대해 기록해 두었다. 200년이 훨씬 지났지만 우리는 개척의 조상들과 우리의 작은 항도 연구에 소중한 공적을 남긴 분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유즈노-쿠릴스크시 지방자치체의 파벨 고말렙스키 시장이 말했다.

학교-유치원 종합학교의 아나스타시야 모키나 교장은 "우리는 오늘 모든 교육 표준에 적합한 새로운 건물을 개교합니다. 이 계획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우리가 편안히 공부하고, 일하기 위한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고 말했다.

새로운 종합학교에는 15명의 교사들이 근무하는데 이들 중 4명의 교사는 러시아 여러 지역에서 쿠나쉬르로 이주했다. 이 지역 행정부는 이들 교사들을 위해 두 개 마을에 있는 잘 수리된 아파트를 제공했다.

올해 사할린의 6개 지역에 18기의 천연가스 보일러시설 건설

올해 블록-모듈형 천연가스 보일러시설 건설이 아니라, 마카로브, 포로나이스크, 티몹스코예, 코르사코브,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크 지역에서 시작된다.

이는 사할린 가스화 전략의 일환으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주택 공공사업의 시설들을 친환경적 연료로 전환하는 대규모 건설작업이다.

마카로브 지역에서 4기의 보일러시설 건설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 중 하나는 마카로브에, 또 3기 시설이 1.98메가와트 작은 용량으로 노워에 마을과 포레치에 마을에 건설된다. 포로나이스크 지역 중심에는 용량 60메가와트와 4.33메가와트의 2기 보일러시설이 건설되며, 가스텔로 마을과 레오니도워 마을에도 이 같은 용량의 보일러 시설이 건설된다.

사할린주 주택공공사업부 나탈리아 쿠프리나 장관은 "포로나이스크 지역에 4호 블록-모듈형 천연가스 보일러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5월에는 시험가동할 계획이다. 새로운 공공재반시설의 구축으로 26개의 아파트단지, 18채의 개인주택의

주민들과 사회적 시설들에 난방을 공급하게 된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석탄 보일러시설을 폐쇄하고, 천연가스로 가동되도록 시설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당초 천연 연료를 사용하도록 계획된 새로운 블록-모듈형 보일러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티몹스코예 마을을 비롯해 워스호드, 워스크레세네키, 몰로조즈노예 마을 구역에도 4기의 블록-모듈형 천연가스 보일러시설이 건설되며,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크 지역에서는 미하일롭카 마을에서, 코르사코브 지역에서는 다츠노예 마을에서 건설작업이 이뤄진다.

또한 코르사코브 지역과 돌린스크 지역에서도 15기의 블록-모듈형 천연가스 보일러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코르사코브 지역 차파예워, 라즈돌노예, 솔로비요카, 오조르스코예 마을들에 7기 및 도심에도 3기가 건설된다. 돌린스크 지역에서는 시 중심을 비롯해 소콜, 비코브, 포크롭카, 스타로돌스꼬예, 소베트스코예 마을들에 8기가 건설되고 있다. 새로운 시설 건설은 지자체장의 지시로 특별 관리 아래 진행되고 있다.

단신

2024년 대한민국 22대 총선 결과

2024년 4월 10일(수) 한국 국회의원(임기 4년)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사전투표가 2024년 4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됐고, 선거권은 2006년 4월 11일 이전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었다. 선출대상은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17명, 기초의원 26명이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약 67.0%로 1992년 이후 최고 투표율을 보였다. 개표결과 더불어 민주당(이재명 대표)이 175석(지역구 161석 비례대표14석)을 차지해 원내 제1당이 되었고, 보수정당인 국민의 힘(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08석(지역구 90석과 비례대표 18석), 개혁신당(이준석 대표) (지역구 1석 비례 2석)3석, 조국혁신당(조국 대표)은 비례대표만 12석, 새로운미래당(이낙연 대표) 지역구 1석, 진보당(윤희숙 대표) 지역구 1석을 차지했다.

사할린주, 전국 채용박람회 개최

4월 12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비롯해 사할린주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러시아의 일. 기회의 시기> 전 러시아 채용박람회가 진행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리는 채용박람회의 주요 장소는 '활발한 교육'센터이며 이곳에서 16개 기업 고용주들로부터 300개 이상의 일자리가 구직자들을 기다린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무직의 주민과 사회적 지위를 바꾸려는 주민들, 고등교육 졸업자, 중등교육 졸업자들을 위한 채용박람회가 10시부터 13시까지 열린다.

오후부터 '활발한 교육'센터에서는 8학년-11학년의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육서비스 박람회가 시작된다.

'고르니 워즈두호'스키장, 200만 번째 스키 하강

4월 9일 유즈노사할린스크 '고르니 워즈두호' 스키장에서 200만 번째 스키 하강이 기록되었다고 사할린주 관광부가 전했다. '고르니 워즈두호'의 이러한 결과는 단 2달 만에 달성됐다. 100만 번째 스키 하강은 2024년 2월 14일에 있었기 때문이다. '고르니 워즈두호' 단지 회장은 스키단지가 역사상 최초로 200만이라는 숫자를 넘어섰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고객들은 스키코스에서 지난해 스키시즌보다 40만 회 이상 더 탔다고 전해졌다.

새고려신문

2024년 하반기 신문 구독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46,98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이 나탈리아: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지난주에 지인의 소개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 이민자(50세, 러시아 이름 나탈리아 알렉세예브나) 씨를 만났다. 그녀는 12년 넘게 장애 아들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다.

"저는 엘레나 스톨랴로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дума 의원이 장애아를 위해 만든 '열려있는 마음' 클럽이 창설될 때부터 여기에서 계속 활동해 왔어요. 2022년에 이 클럽이 공식적으로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었고, 저는 초대 지도자로 봉사했습니다. 작년 8월에 1주년 기념행사도 멋지게 치렀어요. 클럽과 인연이 되었던 자선가, 협력자, 우정을 나누는 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축하도 해주었습니다. 제가 '열려있는 마음' 클럽 활동에 계속 참가하는 이유는 저도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 나탈리아가 말했다.

첫째 딸은 정상 분만했는데 2008년에 둘째 딸은 25주가 되어 미숙아로 태어났다. 몸무게는 670그램, 신장은 13cm였다. 그 당시 의사들도 '이 아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많이 의문을 했었다. 그리고 나탈리아에게는 '아기가 죽었다.'라고 전했다. 나중에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통해 알게 되어 의사를 찾아갔다.

이렇게 아이는 살아남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문제가 생겼다. 3개월 후 딸이 시력을 잃었다. 하바롭스크로 갔더니 이미 2주 늦었다고 했다. 뇌성마비도 오고, 뇌전증도 생겼다. 그런 중에 남편의 진지한 배려와 응원은 나탈리아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힘을 주었다. 그가 얼마나 많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생을 해왔는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지금 우리 막내가 15세입니다. 예뻐요. 제 눈에는 그래요. 주로 재택 공부를 해왔어요. 현재 '나제즈다(희망)' 특수교육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몸 상태 때문에 주로 집에서 공부를 하고 1주일에 두 번 정도 학교 수업에 나가서 교육 받으려고 합니다. 큰 딸은 현재 이미 모스크바의 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구요."라고 나탈리아가 이야기를 이었다.

이렇게 아이를 돌보며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12년 전부터 시작한 나탈리아는 항상 성격도 적극적이었다. 10여 년 전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제37호 유치원에서 처음으로 시작장애 아동을 위한 첫 반이 생겼다. 그때 나탈리아는 시각장애아들을 위해 처음으로 '특이한 선물을 해줘'라는 기획을 실시하였다. 동창생, 친구, 아는 자선사업가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아이들에게 대규모의 선물을 준비했다. 선물은 주로 평

소에 잘 먹지 못한 맛있는 한국 및 일본산 사탕, 과자, 꿀 등으로 조합했다. 이런 새해 선물기획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10년 전에 이런 선물을 받은 아이 10명이 현재도 해마다 연말연시에 이런 선물을 받고 있다. 나탈리아는 이들의 집까지 찾아가 직접 선물을 전달한다.

학창시절에도 나탈리아의 성격은 항상 적극적이었다. 루고위에 학교에서 공부한 그는 학급 반장도 했고 '콤소몰'단체장도 했었다. 그리고 그가 부탁할 때는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열고 잘 응한다. 그의 타고난 리더십은 그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진행한 <무관심하지 않은(걱정하는) 사람>대회, 하바롭스크에서 열린 <남의 아이는 없다>라는 대회에 참가한 후, 더욱 단단해졌다. 새로운 지식도 많이 얻었고, 극동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료 사회활동가들과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장애인 학부모들과 하는 행사가 한두 개 아니다. 바자회도 하고 마스터클래스도 하고 장애아축제를 하기도 했다. 얼마 전에 그는 <열려있는 마음>단체 지도부에서 벗어나 한 달 전에 또다른 비영리단체를 등록했다.

"제가 <빅토리아>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 단체도 역시 장애인을 위한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가 많을수록 좋거든요. 지원, 장려금 등 문제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단체를 포함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가 4개 정도 있는데 각 단체에 나름대로 균형잡힌 활동 방향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따라 단체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대상은 똑같아요."라고 이 나탈리아가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보통 단체에는 장애인, 장애아의 부모, 다자녀가족, 장애가 없는 일반 시민 등이 회원으로 돼 있다. 이래야 통합교육이 잘 이루어진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환경에서 같은 걸 함께 한다는 뜻이다. 서로 보고 배우는 거다.

나탈리아 씨는 이번엔 설립된 '빅토리아'단체(단체 이름은 장애가 있는 딸의 이름)에서는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중 하나는 18세 이상 무능력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반 개설입니다. 유치원 같은 것인데 장애아는 여기에서 하루를 보내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합니다. 비영리단체 '활발한 교육'센터와 함께 기획들을 실행하려고 해서 현재 장려금 지원서를 작성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꿈이 있습니다. 장애아 이들이 어머니들과 함께 며칠 캠핑하는 것입니다. 캠프에서는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위한 활



동프로그램을 따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도 기본 전환을 하고, 조금이나마 정신적, 육체적으로 쉬게 하고 싶어요. 아이들도 캠프에 가 있는 동안 어머니에게 너무 의지하지 않고, 조금 더 독립적으로 활동했으면 합니다."라고 나탈리아가 말하였다.

그에 따르면 다행히 이런 그의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행정부에서도 장애아아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자 한다. 엘레나 표도로와 부시장도 많이 뒷받침하고 '활발한 교육'센터의 일로나 월로쉬나 센터장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나탈리아는 또한 창의력이 있는 아이들을 항상 돕고자 한다. '노래하는 섬뜩'장애아 노래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이 대륙에서 예술인으로서 활동하거나 교육받도록 또한 노력하고 있다. 그녀의 아이는 무대에 나서지 않지만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랫동안 이런 사회 분야에서 활동하다보니 인맥도 생기고 아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장애가 많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라고 할텐데 저희(남편과 저)는 아닙니다. 이런 사실은 강한 사람들만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정말 많이 애썼습니다. 사실 의사들은 '아이가 식물처럼 누워있고, 움직이지 못하고 숨만 쉴거'라는 진단을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딸은 지팡이를 좀 쓰지만 잘 걸어 다녀요. 밥은 가끔 먹여줍니다. 혼자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먹여달라'하면 무조

건 먹여줍니다. 이렇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은 남편 덕분이라고 다시 한 번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나탈리아가 말하였다. 사실 고려인동포인 남편의 응원의 어깨는 그의 활동에 큰 무기가 된다. 새 단체 이름, 로고, 문서 등 작성에 그는 무조건 참가했다.

"그리고 웬지 연초부터 저를 많은 비즈니스맨, 자원봉사 등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사할린국립대에서 '바자회를 해서 5만 루블리를 거두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데 누구 도움까?'란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 아는 장애아 집에서 목욕할 때 꼭 필요한 장비가 고장 나서 그걸 새로 구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또 다른 데에서도 연락이 와서 좋은 일에 자금을 쓰려고 했는데 마침 한 단체에서 한 기획 실행에 돈이 모자라서 서로 연결시켜드렸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데요!"라고 나탈리아는 이야기했다.

최근에 그는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곤)와도 협력하였다. 시한인회 측에서 장애아 부모들을 위해 요리 활동교실을 열었다. 과전 등 여러 가지를 직접 만들어 보며 어머니들이 만족해 했다. 늘 장애아 엄마들의 건강, 정신력, 피로감 등에 대해 걱정하는 나탈리아에게는 이런 반응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런 사회적인 활동을 나탈리아는 주로 낮에 한다. 밤에는 그는 순대를 비롯해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든다. 얼마 전에 자영업인으로 등록했다. 주문을 받고, 반찬을 만드는 것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이다. 나탈리아가 많이 바빠지고 해서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고 있고, 반찬을 만드는 데에 적극 돕고 있다.

나탈리아와 2시간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는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다. 그가 사람들에게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인상적이었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며 이를 위해 뭔가를 더 하고자 하는 열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아닐 것이다. 정호승 시인의 '내 등의 집'이란 시구 중에 '내 등에 집이 없었다면 겸손과 소박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집 때문에 나는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집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집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란 표현이 맞을 것이다.

(배순신 본사 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의 무용수, 전국 무용 올림피아드에서 수상

코르사코브 아동예술학교 무용단이 <전 러시아 무용 올림피아드> 무용기술 경연-축제에 참가해 상을 가지고 돌아왔고 아동예술학교 측이 전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경기에 사할린, 캄차트카, 부랴치야, 야쿠치야, 하바롭스크, 연해주에서 어린 무용가들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 사할린 지역을 대표해 '사할린의 자오선' 무용 앙상블 8학년 졸업반 학생들이 참가했다."고 전해졌다.

사할린의 참가자들은 <민속-연극 무용>부문에서 2위, <가무>부문에서 2위, <고전 무용>부문에서 3위로 3개 부문에서 상을 수상했다.

Сахалинские танцоры стали лауреатами Всероссийской Танцевальной Олимпиады

Танцоры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Корсакова вернулись с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конкурса-фестиваля «Всероссийская Танцевальная Олимпиада» с наградами.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ДШИ.

Турнир прошел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и объединил юных танцоров с Сахалина, Камчатки, Бурятии, Якутии, Хабаровска 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 дан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представили учащиеся восьмого выпускного класса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ансамбля «Сахалинский меридиан», - уточнили в сообщении.

Островитяне участвовали в трех номинациях и завоевали лауреатство II степени в номинации «Народно-сценический танец», лауреатство II степени в номинации «Эстрадный танец» и лауреатство III степени в номинации «Классический танец».

주향토박물관, <사할린 방문한 우주 비행사> 사진전시회 개최

4월 12일(금)부터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층간 공간에서 <사할린 방문한 우주 비행사> 사진전시회가 시작된다고 박물관 측이 전했다.

전시회 관람객들은 소비에트 시절 사할린주를 방문했던 우주 비행사들 위탈리 세웨스티야노브, 알렉세이 레오노브, 그리고리 그레츠코, 파벨 포포비츠, 이완 부리킨 등을 추억하는 사진들을 볼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사할린주 향토박물관과 사할린주 국립 고문서부가 공동기획했다."고 전해졌다.

20세기 후반 우주 영웅들이 사할린주 대표들과 노동단체와 공산소년단과 공산청년단, 사할린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순간을 잘 포착한 사진들로서 보존되어 있다. 전시회는 5월 5일까지 진행된다.

В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откроется фотовыставка «Летчики-космонавты на Сахалине»

С 12 апреля в межэтаж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начнет работать фотовыставка «Летчики-космонавты на Сахалине».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музее.

Посетители смогут увидеть фотоснимки, на которых запечатлены летчики-космонавты СССР во время посещ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реди них Виталий Севастьянов, Алексей Леонов, Григорий Гречко, Павел Попович, Иван Бурыкин и другие.

«Это совместный проект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рхи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тметили в приглашении.

Снимки хранят моменты встреч героев космоса с руководством области, трудовыми коллективами, пионерскими и комсомоль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с населением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X века. Выставка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до 5 мая.

(8면에 계속)

노글리키, 제14회 사할린주 북방 원주민 축제 개최

4월 5일부터 7일까지 노글리키 지역에서 제 14회 사할린주 북방 원주민 축제가 개최되었다고 사할린주 민속창작센터에서 전했다.

축제에 주내 7개 지역에서 150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축제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경

기와 창작 수공예품 전시회, 미술 창작축제, 요리 경연, '엘게분. 운반용 순록떼' 도서출간 발표 등의 화려한 행사들이 참가자들을 맞이했다.

4월 7일(일)에는 미술 창작축제와 '민족 요리의 특징' 요리 경연에 대한 결과가 발표

돼 심사위원들은 다양한 시상 부문에서 영예의 상을 우승자들에게 수여했다고 전해졌다.

축제 참가자들은 님프족의 삶과 생활상을 보여주는 <님프족(감독 알렉산드르 리)> 연극도 관람했다.

사할린, <오스트로와> 전국 러시아 청년포럼 참가신청 시작

사할린에서 일련의 러시아 청년.행사로서 <오스트로와> 전국 청년포럼 등록이 사할린에서 시작되었다. 포럼은 2024년8월5일(월)부터 11일(일)까지 러시아에서 가장 큰 섬인 사할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3년에 러시아 청년 전국 우수포럼 <브레마 물로디흐(청년의 시기)>상 부문에서 <오스트로와>가 선정되었다.

행사의 주요 주제는 사회적 진출이다. 러시아의 다양한 지역에서 14세부터 35세 연령의 청년 관리자, 분석가, 인재 정책 및 관리에 따른 인사 전문가, 산업 기업의 직원들 500명 이상이 유즈노사할린스크로 모인다. 이 행사는 사할린주 정부와 연방 청년사업청이 주최한다.

"올해 연방 단계의 청년포럼은 5회를 맞고 있다. <오스트로와>포럼은 점차 인기를 얻고 있으며, 포럼 등록 신청자 수도 상당하다. 2023년에 포럼에 참가를 위해 러시아 청년들 사이 경연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높아져 참가

자 간 경쟁률은 16대1이나 되었다. 청년들은 사할린주를 방문해 지역을 알아보고, 생활하며 사회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장소로서 사할린주를 살펴보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러시아 연방 청년청의 포럼이사회 대표인 예카테리나 안토노바가 말했다.

포럼의 교육 프로그램은 3개 방면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진출. 교육> 방면에는 해양 경제의 핵심 분야에 따라 전국 대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모여, <사회적 진출. 생산>방면에는 사할린 지역 경제개발 핵심 분야의 청년 기술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인다.

<사회적 진출.최고> 방면에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적 자아형성과 자기결정을 위한 기회를 열어준다.

"<오스트로와>포럼의 이사회와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행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올해 포럼의 주요 초점은 사회 진출로서 지역에서 1년 내내 청

년교육센터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 기능은 끊임없이 국민의 사회적 진출을 개발하는 데 있으며, 그것의 핵심적 행사가 우리 포럼이다. 1년에 걸쳐 우리는 <오스트로와> 포럼 참가자들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온 청년들을 교육할 것이다."라고 사할린주 청년사업청의 아나스타시야 코쎬펜코 청장 대행이 말했다.

행사에서는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대형 교육 코너에서는 흥미로운 전문가들의 강의와 활동교실 및 대담이 조성된다.

지난해에는 포럼에 전국 88개 지역에서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참가 신청자는 총 5,435명이나 되었다. 올해 포럼에서는 러시아 청년사업청으로부터 장려금을 타기 위한 기획 발표회가 열린다. 참가자들은 장려금 1백만 루블리의 증서 획득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포럼 등록은 포럼 웹사이트에서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사할린주정부 제공)

사할린의 대표적 명소 아니와 등대, 개건에 앞서 점검

사할린섬 최남단 외딴 곳에 있는 아니와 곳에 세워진 등대 특별조사단 조직의 일환으로 설계 기술자, 콘크리트 구조물 연구 전문가, 생태학자, 역사학자, 향토연구자들이 점검에 나섰다. 여기서 얻은 자료들은 등대를 지역의 상징적 구조물이자 유명 관광명소로서 개건하는 데 필요하다.

앞서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이 등대 개건 및 복구 작업을 하기 위해 러시아 연방 국방부의 소유로부터 사할린 정부의 소유로 이전하길 요청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지를 얻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현재 아니와 등대를 사할린 지역의 소유로 전환하는 데 대한 문제가 해결돼 국방부와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동시에 이와 함께 개건 문서 준비에 따른 많은 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 이는 되도록 신속히 개건에 착수하고, 사할린주의 명소 중 한 곳인 등대를 등대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등대에 도착한 조사단이 면밀히 등대를 조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외부 및 내부 공간 변경을 조사하고, 기존 콘크리트의 강도를 연구했다.

시설 개건 시 건설자들은 현대적인 건설 공법을 사용할 계획이다. 시공업자들은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정박지를 조성하여 이를 통해 우선 건축자재를 입수하고, 다음 관광객들을 하선시킬 계획이다.

첫 단계 과제는 등대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 연구가와 향토 연구가들이 참여했다. 등대의 기존에 보존돼 있는 역사적 시설들을 꺼내고, 등

대를 복구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승리' 역사기념박물관의 유리 필리펜코 관장은 "등대의 역할 자체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등대 안에 박물관의 일부를 조성하여 이곳에서 등대의 역사와 사할린에 등대의 역할을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와 등대에서 일제시대와 소비에트 시절의 유물을 살펴보고, 이곳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시대와 사건들을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다. 등대는 벌써 30년간 운영되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카라후토시대와 소비에트시대의 유물들이 보존되어 있다."고 말했다.

등대 외부공사는 올해 11월 중순쯤 진행할 예정이고, 향후 전문가들이 등대의 외관을 정비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안전시설을 좀더 조성할 계획이다.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겨울 남풍 / 안상학

내 걸어온 길 사랑 아닌 적 있었던가
겨울 남풍에 실려 온 동백꽃 내음을 따라
내 걸어갈 길 사랑 없이 갈 수 있으리라
기차는 기차길을 밟으며 지나가는데
내 사랑도 없이 사랑의 길 갈 수 있으리라
밤에 쓴 편지를 전해주는 우체부처럼
한낮의 골목길을 서성이는 사랑이여
기차길이 환히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서면
동백 동백 동백꽃 지는 가슴을
남으로 난 기차길 위에 올려두고 싶었네
"지난 한 달 어찌다 안



상학 시인과 함께 집필실을 이용했습니다. 강원도 강릉면의 <예버딩 문학의 집>. 한 분 더. 조명 시인도 함께했으니, 알게 모르게 제게는 시를 배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저녁 무렵 차를 마시거나 날이
곳어 술을 한 잔 걸치는 시간들. 아무렇지도 않게
식기질이 흘러 나오고, 잇을 만했던 옛 시의 언어
들이 묘비에서 추적추적 걸어 나와 선언을 하듯
시를 읊조리다 어느새 사라지는 시간들이었습니
다. 제 눈에 비친 안상학 시인은 누가 뭐래도 '백
석'을 닮았지요. 그리움이 짙게 뻗 미남자. 인정하
기 싫지만 미남이십니다. 술 이야기가 빠질 순 없
겠지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술도 살짝 곁들이고,
가끔 노래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 안상학 시인의
노래를 들었던 느낌이었나요? 아, 이를 표현하기란
굉장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렵고도 말고요. 전 지
금도 이 분이 노래를 잘하는 편인지 못하는 편인
지, 구분이 잘 안 서거든요. 헤비메탈 말고 이보다
더 썸 데스 메탈에 가까운 톤을 일단 유지합니다.
목청 어딘가에 디스토크션 페달을 장착하신 듯. 처
음엔 정말이지 국악 명인 조통달 선생이 메탈리
카의 <Enter Sandman>을 부르는 줄 알았더니까
요. 피를 토하며 부르지 않으면, 매 타자이라도 뒤
따르는 듯, 최선을 넘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듯
부르십니다.

하나 더. '울동'을 빼 놓을 순 없겠지요. 이분
은 그냥 서서 부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라 스트라
다(La Strada)의 차력사 '참파노'를 떠올리시면 딱
입니다. 차력사보다 더 당당한 기세로 줄곧 태극권
장풍을 쏘듯이 노래를 하시지요. 특히 고음 부분에
이르러서는 양 팔로 있는 힘껏 거대한 원을 그리시
면서 푹푹푹 그 음에 도달하는 기법의 소유자세
요. 흑시 예원제 박사와 함께 외계생명체 '삼체'에
게 연락을 취하려고 하였던 걸까, 아무튼.

이분의 멋진 시 <겨울 남풍>을 들려드립니다.
미련은 미련인데, 이토록 당당한 미련이라니. 역시
좋은 시는 좋은 노래일 수도 있겠구나, 새삼 깨우
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에서 지낼 적 '바르드' 파티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
지요. 모두들 통기타 하나로 각자 노래를 발표하는
자리. 즐거웠던 추억입니다. 다시 사할린을 방문해
서 '바르드' 파티에 초대받으면 저는 <겨울 남풍>
을 불러야지,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르
면 일단 인기상은 떼어 놓은 당상. 그렇게 되면 저
는 아무진 편이니까, 그 날 이후 <노스텔지어>의
유제니아를 닮은 분과 꼬박을 마시며 사랑에 빠지
고야 말겠지요. 오우, 야, 그렇지만 이런 건 뭐 운
명 같은 거니까. 운명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
요, 뭐. 아, 물론 아내가 있는데, 다행히 아내의 서
울에 계시니, 췌, 쉬잇! 까짓 거 오늘은 한 번 아무
지게 완벽한 이중 생활을 꿈꿔보는 겁니다. 모스
크바의 '올가', 썸 베체르부르크의 '마샤', 유즈노
사할린스크의 '이리나!' 쪼까 지달려들 보드랑께!
남자가 말이야, 배짱이 있어야지, 배짱이! 동배, 동
배, 동백꽃!"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기념

2024 우리말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공모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쿠르(글짓기)를 개최합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한 글만 받습니다. 특히 올해 러시아에서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 만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바랍니다.

• **공모기간:** 2024년 5월 중순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에 대한 정보는 차후 알려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보내주
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십시오.

문의전화: 43-59-80, 43-72-94.

콩쿠르조직위원회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5-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vika131065@mail.ru, vika131065@gmail.com.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4242)43-59-80, 43-67-85.,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середины мая 2024 г.
Учащим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удет выдан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граждении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позже.
Оргкомитет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50 популярных корейских фамилий со значением (история формирования)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 13)

История формирования фамилий в Корее

Корейские фамилии, как и многие аспекты азиатской культуры, занимают особое положение в мировых имьяреках. Вплоть до конца эпохи Чосон (1392—1910) фамильные конструкции были исключительно привилегией аристократических семей и королевского рода.

В то время как в большинстве европейских стран, например, фамилии начали давать простому люду ориентировочно в XVIII—XIX веках, в Корее всё сдвинулось с мёртвой точки лишь к началу 20-х годов XX века.

Немаловажным является и тот факт, что на количество и структуру корейских фамилий (и на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в целом) оказал огромное влияние Китай. Корейские аристократы, перенявшие конфуцианство и его традицию записи имён, начали каждую свою фамилию обозначать китайским иероглифом, который имел то или иное значение.

Например, Ким дословно переводится как «золото», Ли — «слива, дерево сливы» и т.д. Слива вообще является излюбленным символом в азиатской культуре, она символизирует преданность, силу, продвижение п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е.

Слива начинает цвести в самом конце зимы на абсолютно пустой и промёрзшей почве, холода и заморозки ей не страшны, она напоминает людям, что скоро придёт весна и все невзгоды останутся позади. Благородство духа, преодолевающего все трудности.

Популярность практики записи корейских фамилий аристократов китайскими иероглифами возросла примерно в VII веке в поздний период существ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Силла.

Причём благородные господа предпочитали не обделять себя, в качестве своих фамилий они выбирали исключительно знатные китайские фамилии. Они брали их за основу под тем предлогом, что, их предки тоже из Китая, из благородного рода.

Если верить статистике и современным исследованиям, то более чем 130 корейских фамилий были «одолжены» у китайских братьев. И потому-то сегодня фамильная форма Ли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самых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в мире. Её носит более 100 млн. человек, большая часть которых китайцы, но есть и корейцы.

Когда влияние дворянских сословий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начало стремительно расти, Ван Гон (основатель династии Корё) начал предоставлять их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фамилии. Подобный жест позволял отныне выделять благородных господ, являющихся верно-подданными правящей верхушки,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чиновников.

Все те, кто успешно сдавал экзамен, позволяющий продвигаться по службе и социальной лестнице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должны были выбрать себе фамилию, которая отныне бы использовалась во всех официальных документах.

Постепенно традиция распространилась и на богатых торговцев. Они буквально выкупали родословные книги у разорившихся аристократов, а затем присваивали их родовые привилегии себе.

К концу XVIII века фальсификация фамильных записей цвела пышным цветом. Существовала даже такая практика, при которой, когда знатный род прерывался по той или иной причине, члены семьи продавали запись своей родословной, а затем вписывали туда за деньги «не родственника».

В 1894 году строгая классовая иерархия в Корее была упразднена. Отныне обычные люди тоже могли выбирать себе фамилию. Чаще всег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изших сословий брали себе фамилии, которые некогда принадлежали их хозяевам, или же выбирали наиболее распространённые в то время конструкции.

В 1909 году выходит новый закон, по которому каждый кореец обязан был выбрать себе фамилию и официально её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этот закон был не следствием какой-т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для структурирования социальных аспектов, например), а скорее попыткой поспеть за Японией, в которой на тот момент практика присвоения гражданам фамилий была в самом разгаре и помогала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население.

Естественно, как только неблагородные, длительное время угнетаемые высшими условиями люди получили, наконец, право выбирать и носить фамилию, они сразу же начали присваивать себе «могущественные и привилегированные» фамилии: Ли и Ким.

Как и во многих восточноазиатских странах, женщины в Корее обычно сохраняют свою наследственную фамилию после замужества. Дети всегда получают родовую фамилию своего отца.

По традиции, каждому клану необходимо публиковать генеалогическое древо (в Корее носит название «чокпо») через каждые 30 лет.

Популярные фамилии в Корее

Как и раньше, исконно корейских фамилий практически не существует в мире. Большинство именных конструкций корейцы заимствовали у своего «большого брата Китая», из-за чего проследить историю многих фамилий становится затруднительно.

Согласно статистике, сегодня в Корее существует всего около 300 фамилий, что в сравнении с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в которых количество фамильных форм достигает нескольких тысяч, феноменально.

Самыми популярными здесь являются следующие формы:

- о Ли;
- о Ким;
- о Пак;
- о Цой;
- о Чон;
- о Чен.

Определённого адресата с таким скудным набором фамилий в этой стране найти, мягко говоря, затруднительно.

Менее распространены следующие формы:

- о Чо;
- о Чан;
- о Хан;
- о Кан;
- о Юн;
- о Со;
- о Лим;
- о Сим.

В Корее в конце XX века насчитывалось свыше 3 тысяч кланов. Наиболее многочисленный клан — это Кимхэ Ким (клан Кимов из города Кимхэ). Другие самые крупные кланы, которые в своём составе имели сотни тысяч и миллионы человек: Ли из Чонджу и Кёнджу, Пак из Миряна.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Источник: <https://semfamily.ru/istoriya-familij-stati/korejskie>

Память жертв, погибших в апреле 1920 года, почтили в Уссурийске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Уссурийска по традиции прошло мероприятие в память о героях, павших в борьбе с японскими интервентами.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погибших в борьбе с японским интервентами приш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Уссурийска,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 Владивостоке,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и корейцев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юнармейцы и простые горожане.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лась гимном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исполнили танцевальные и вокальные номера.

В завершении мероприятия собравшиеся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героев минутой молчания, а также возложили алые и белые цветы.

В ночь с 4 на 5 апреля 1920 года

японские войска напали на органы власти и военные гарнизоны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Хабаровске, Уссурийске и в друг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Приморья, безжалостно расправившись с сотнями красногвардейцев и корейцев. Это была самая кровавая ночь за всю историю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и иностранной интервенции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сточник: <https://t.me/saramk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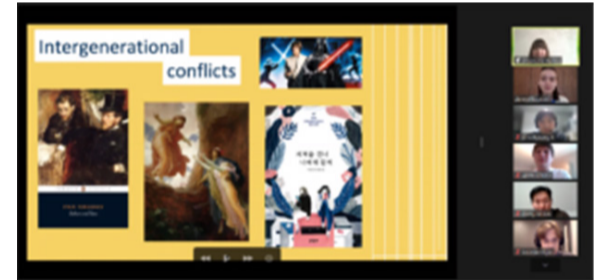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глазами российской и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Актуальную социальную повестку на тему «Устои, ценности и ожидания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Восприятие молодежи» обсудили на третьем заседании молодежного дискуссионного клуба ДРПК студенты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2022 года в рамк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Молодёжный диалог» форума «Диалог Россия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начал функционировать молодёжный дискуссионный клуб, на заседаниях которого студенты россий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высш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бсуждают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культурн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 других сфер жизни. Клуб был создан по инициативе руководства форума «Диалог Россия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в частности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дседателя российского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го комитета ДРПК, ректора СПбГУ Николая Кропачева и руководителя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ДРПК «Молодёжный диалог», президента РУДН Владимира Филиппова.

Нынешняя встреча была посвящена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с молодежью, тем ценностям ориентирам, которые нужно хранить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устойчивой связи между поколениями. Участие в дискуссии также приня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олодежных диалогов форума ДРПК. Модера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я от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выступила студентк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Диана Басараб. Доклад на тему «Активное долголетие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России» представила студентка СПбГУ София Бердыева. Она рассказала о нов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ограммах, которые реализуются в России и направлены на улуч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пенсионеров. Студентка Моск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Марина Дьянова в докладе «Ностальгия как инструмент сближения поколений на материале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и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и кинематографа» отметила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богащения знаний молодежи о культурных традициях двух стран.

От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доклад «Поколенчески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и проблемы конфликта поколений в Корее» представил студент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рё Ли Тончжун. Он привел статистические данные, на основе которых выделил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свойствен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различных поколений в Корее. О фундаментальных причинах разлада между поколениями упомянул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студент университета Чунан Чха Ынхе. По мнению докладчика изменения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олитике и восприяти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являются основными причинами такой тенденции. Доклады с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ли: Пак Чемин (университет Корё) — «Распад единств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индивидуализма», Ли Чонгиль (университет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участник XI молодёжного диалога) — «Свидетельство изменения ценностей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зных поколений на примере различий в предпочтениях в работе: фокус на поколения бэйбибумеров и МZ», Ким Хочжун (университет Сонгюнгван, участник XI молодёжного диалога) — «Пенсионная систем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ак фактор для поколенческих разногласий».

Россию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едставляли: Катерина Архипов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Анастасия Клемуши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 «Влияние соврем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нтернета и социальных сетей на восприятие ценностей и ожидани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молодежью России», Алиса Свитова (Уральски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ени пер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Б. Н. Ельцина) — «Различия в ценностях молодого 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й России», Валерия Шестакова (Тихооке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Егор Лебедев (Тихооке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Кирилл Гончаров (Тихооке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Екатерина Медведева (Тихооке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 «Ожидания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от современной молодежи в России».

Пресс-служба СПбГУ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РК успешно запустила второ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й спутник.

РК запустила второй военны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й спутник.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запуск произведён 8 апреля в 8:17 утра по корейскому времени с помощью ракеты SpaceX Falcon 9 из Косм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имени Кеннеди в штате Флорида. Спутник вышел на заданную орбиту примерно через 45 минут после запуска, а в 10:57 был проведён первый сеанс связи с наземным центром управления полётами. Это дало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знать запуск успешным. Спутник оснащён радиолокационными датчиками с синтезированной апертурой (SAR), которые собирают данные с помощью микроволн независимо от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й.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до конца 2025 года на орбите будут находиться пять южнокорейских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х спутников для наблюдения за территорие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ри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е пять спутников будут осуществлять фотосъёмки земной поверхности с двухчасовыми интервалами.

РК и США возобновили поиски останков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8 апреля РК и США возобновили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поисков останков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погибших во время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1950-53 годов.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РК, Корей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по обнаружению и идентификации погибш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Агентство по обнаружению и идентификации погибш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США и Агентство по учёту военнопленных и пропавших без вести Минобороны США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раскопки в пяти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Данная работа проводится ежегодно после подписания в 2011 году соглашения о совместных поисках останков погибших. По данным командования ООН, в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участвовали более 1 млн 700 тыс.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более 36 тысяч из них погибли. Около 7,5 тысяч американских граждан до сих пор числятся пропавшими без ве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готово обсудить с бастующими квоты на приём в медвуз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готово обсудить с врачами вопрос распределения квот на приём абитуриентов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если они предложат согласованные и более разумные меры. Об этом заяви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Чо Гю Хон, выступая 8 апреля 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совещании в Сеуле. Он напомнил о готовно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 «искренним дискуссиям с медицинским сообществом, чтобы раз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Между т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намерено отказываться от реформирования систем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оскольку «только медицинская реформа может обеспечить её устойчивость и защитить здоровье людей», - отметил Чо Гю Хон. Около 12 тысяч врачей-интернов по всей стране не выходят на работу с 20 февраля в знак протеста против пла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увеличить приём в медицинские школы на 2 тысячи человек. Ранее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дчёркивалось, что план медицинской реформы принят на основе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 обсуждений с медицинским сообществом.

7 ресторанов РК - в списке ста лучших ресторанов Нью-Йорка

Семь корейских ресторанов включены в список ста лучших ресторанов Нью-Йорка 2024 года по версии газеты New York Times. При этом ресторан Atomic помещён на четвёртое место, поскольку он «максимально использует новые пищевые ингредиенты, а блюда подаются в посуде из корейской керамики». «Посетители ресторана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ь в полной мере ощутить традиционно корейскую атмосферу», - пишет New York Times. Jeju Noodle Bar находится на 16-м, ресторан Atoboy на 30-м, Okdongsik, расположенный на Манхэттене, занял 40-е место. Ресторан Yoop Haeundae Galbi на 52-м, Oiji Me на 77-м, а Maro Korean BBQ на 91-м месте. Комтхан из свинины, который готовят в ресторане Okdongsik, был назван в числе восьми лучших нью-йоркских блюд, список которых был опубликован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повысит уровень жизни в РК

Широкое внедрение технологий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РК позволит в течение трёх лет получить экономический эффект, оцениваемый в 300 трлн вон (220 млрд долларов) в год.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едён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ом нау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глобальной консалтинговой компанией Bain & Company. Внедрение технологий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сферы производства, медицины и финансов только в 2026 году даст экономический эффект на сумму 310 трлн вон. 123 трлн вон (91 млрд долларов) составят продажи новых товаров с применением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Благодаря автоматизации и оптимизаци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процессов,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издержки сократятся на 187 трлн вон (139 млрд долларов).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одолеть структур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вызывающие замедление темпов роста экономики,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ью и старением общества.

RKI

Оппозиция одержала убедительную победу на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По итогам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состоявшихся 10 апреля, ведущая оппозиционн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сохранила большинство мест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22-го созыва.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подсчёта 99% избирательных бюллетеней она одержала победу в 161 из 254 одномандатных округов. У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лишь 90 мест. С учётом мест по партийным спискам,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вместе с партиями-спутниками получил 175 мест, а партия Сила народа вместе с Народной партией будущего - 108 мест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в котором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300 депутатов.

Оппозиционный блок, включая депутатов от Партии инноваций Отечество, которую основал бывший министр юстиции Чо Гук, получит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87 мест.

Партия нового будущего бывшего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Ли Нак Ёна, получит одно, Партия новых реформ, возглавляемая бывшим лидером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Ли Чжун Соком - три, Партия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 одно место.

В выбора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67%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избирателей. Это самая высокая явка на выборы с 1992 года. Она на 0,8% превысила явку на предыдущие парламентские выборы в 2020 году.

KBS World

Сеульское метро заговорило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Сеул, 10 апреля – ИА РУСКОР. Сеульский метрополитен расширил услуги перевода в режиме реального времени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до 11 станций в Сеуле, чтобы повысить удобство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Переводы на основ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иностранным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ам и персоналу станции общаться на своих языках, находясь лицом друг к другу через прозрачный OLED-экран,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 станции Мендон 4-й линии метро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для пробного запуска. После пробной версии, начиная с конца февраля, Сеульский метрополитен начал предлагать услуги перевода в режиме реального времени еще на 10 станциях: станция Jongno 5-га на линии № 1, станция City Hall, станция Университета Хонгик, станция Euljiro 1-га и станция Gangnam на линии № 2, станция Gyeongbokgung на ли-

нии № 3, станция Gwanghwamun, станц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эропорта Кимпхо на линии № 5 и станции Itaewon и Gongdeok на линии № 6.

Услуги перевода доступны на 13 языках, включая английский, японский, китайский, русский, вьетнамский, тайский, испанский, немецкий, арабский и другие. Помимо услуги перевода,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и также могут планировать свой маршрут, искать пункты назначения и просматривать информацию о системе хранения данных, стоимости проезда в метро, пересадках и времени в пути на прозрачном OLED-экране. «Надеясь предоставить туристам со всего мира более доступное метро и более комфортные впечатления от поездок, Seoul Metro максимально использует технологи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для повышения удобства туристов», — говорится в пресс-релизе Сеульского метрополитена.

Станут ли гастарбайтеры полиглотами?

Фонд Института короля Седжона (KSIF) представил два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учебника — «Легкий корейский для работников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Легкий корейский для работников рыболовства» — для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иностранным сезонным рабочим в изучении базовых навык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ниги разработаны с учетом потребностей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стремящихся преодолеть языковые барьеры в их повседневной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жизни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и рыболовстве. Ожидается, что учебники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в учебных программах институтов короля Седжона, расположенных в регионах с высокой концентрацией сезонных рабочих в Юго-Восточной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Чтобы охватить разнообразную аудиторию учащихся, фонд сделал эти учебники доступными на шести языках: английском, вьетнамском, русском, монгольском, узбекском и кыргызском.

Инициатива отражает попытку улучшить уровень вла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иностранными сезонными рабочими, уделяя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лексике и выражениям, имеющим решающее значение для повседнев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 выполнения конкретных задач 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м и рыболовном секторах. В дополнение к учебникам фонд предоставляе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атериалы, в том числе словарь лексики и выражений, аудиоматериалы и руководство для учителя. Эт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ресурсы предназначены для улучшения процесса обучения и позволяют учащимся удобно практиковать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и выражения. Признавая проблемы, которые создает для трудящихся-мигрантов недостаточная языковая поддержка, KSIF сосредоточился на улучшении их практических языковых навыков для повышения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рабочем месте.

Сеул, 8 апреля – ИА РУСКОР

На рынке труда востребованы 60 плюс

Поскольку Южная Корея стремительно приближается к порогу «общества сверхпожилых», 20,1 процента всех сообщений о поиске работы, загруженных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веб-сайт п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у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и сделаны людьми в возрасте 60 лет и старше.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уд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4,77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попытались найти новую работу через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Worknet, из которых 959 602 были размещены пожилыми людьми.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был выше, чем в любой другой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е,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группы 29 лет и младше, которая загрузила 1,15 миллиона сообщений. Процент сообщений о поиске работы в группе 60 лет и старше в Worknet ежегодно увеличивается с 2013 года, когда он составлял 12,1 процента. В 2013 году на группу 60 лет и старше приходилось наименьший процент сообщений на веб-сайте из все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 что значительно ниже 27 процентов в группе 29 лет и младше, 23,8 процента в группе 30 с чем-то, 18,8 процента в группе 40 с чем-то и 18,3 процента среди лиц старше 50 ле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заявили, что частый поиск работы пожилыми людьми частично связан с тем фактом, что они, как правило, находят работу на короткий срок. Но они также объяснили эту тенденцию быстрыми изменениями в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Южной Кореи. Согласно отчету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ореи за прошлый год, в 2022 году 18,4 процента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были в возрасте 65 лет и старше. Ожидается, что к 2025 году до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в стране составит 20,6 процента от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что сделает Южную Корею обществом пожилых людей по стандартам ООН. По оценкам агентства, к 2070 году 46,4 процента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будут составлять 65 лет и старше, если текущая тенденция сохранится.

Сеул, 7 апреля – ИА РУСКОР.

재외동포청, 2024년 세계 한인의 날 유공 포상 후보자 재외동포 및 국민 공모

- 대한민국 및 동포사회 발전 공헌한 개인 단체
추천 가능...4월 28일까지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4월 8일부터 28일까지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10.5.) 유공 포상' 후보자 재외동포 및 국민 공모를 진행한다.

추천 대상은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대한민국 및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및 국내 유공자(개인 및 단체)이다.

포상 훈격은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재외동포청장 표창이다.

정부 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표창은 3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없다.

재외동포 및 국민 누구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첨부된 공모 안내문을 참고해 추천 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 우편 접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2, 35층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포상담당자 (우편번호 22009) ※ 이메일 접수처:

hjunkim15@korea.kr

후보자 추천이 완료되면, 모든 후보자의 주요 공적 내용이 포함된 명단을 재외동포청, 대한민국 상훈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치게 되며, 접수된 의견은 본인 소명,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에 반영된다. (모든 후보자에 대한 공적 증빙자료 제출은 필수 의무사항)

수상자는 10월 경 재외동포청 및 상훈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 재외동포청: www.oka.go.kr 대한민국 상훈: www.sanghun.go.kr

□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세계 한인의 날 유공 포상은 2007년 처음 시작된 이래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유공자들을 격려해 모국과 동포사회 간 유대를 강화해왔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숨은 공로자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올해 재외동포 차세대 2천명 모국 초청

재외동포청, 총 8회 모국 연수...역대 최대 규모
이기철 청장 "차세대 정체성 함양과 발전상 이해 기회 제공"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재외동포 차세대 2천명을 초청해 모국 연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2024년 재외동포 차세대 모국 연수'는 총 8회에 걸쳐 각 6박 7일 일정으로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는 전년 1천307명 대비 53% 늘어난 차세대가 참여할 계획이다. 청소년 1천300명과 대학생 700명이 모국을 찾는다.

이 사업은 재외동포 차세대에게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한인 정체성과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한국

구분	기간	초청 인원
1차	정소년 2024. 7. 15(월)~7. 21(일), <6박 7일>	300명
2차	정소년 2024. 7. 22(월)~7. 28(일), <6박 7일>	300명
3차	대학생 2024. 7. 23(화)~7. 29(일), <6박 7일>	300명
4차	정소년 2024. 7. 29(월)~8. 4(일), <6박 7일>	300명
5차	정소년 2024. 8. 5(월)~8. 11(일), <6박 7일>	300명
6차	대학생 2024. 8. 6(화)~8. 12(일), <6박 7일>	300명
7차	정소년 2025. 1. 13(월)~1. 19(일), <6박 7일>	100명
8차	대학생 2025. 1. 14(화)~1. 20(일), <6박 7일>	100명

<차수별 연수초청 인원>

역사 이해, 유적지 및 관련 시설 방문과 한국 지역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세계시민교육 등 글로벌 리더십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차세대의 정체성 함양과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차세대들이 모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모국 연수 후 거주국 동포사회에서 리더로 성장하고, 자랑스러운 모국과 함께 상생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아스타나 소재 요리학교 두 곳에 한식교육 전문가 초청 등 지원키로

주카자흐스탄한국문화원과 아스타나 소재 서비스관광전문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 모습 (사진 주카자흐스탄한국문화원)주카자흐스탄한국문화원(원장 구분철)은 지난 4월 5일과 9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 있는 조리서비스학교, 서비스관광학교와 한식 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아스타나의 대표적인 요리학교인 두 학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연간 70시간 이상의 한식 정규수업 커리큘럼을 마련하기로 했고, 한국문화원은 김밥, 떡볶이 등 현지인들이 친숙한 음식부터 한국 궁중요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식을 각 학교에서 가르칠 전문가를 초청하는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구분철 주카자흐스탄한국문화원장은 "한류 열풍으로 카자흐스탄에서도 한식을 배우려 하는 수요가 크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아스타나의 요리학교에서 한식 수업이 정규과정으로 자리 잡고 카자흐스탄에 한식이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한류 경험자 10명 중 7명, 한국 문화콘텐츠에 '호감'

문체부, '2024 해외 한류 실태조사(2023년 기준)' 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정길화)과 함께 해외 주요 국가의 한류 콘텐츠 이용 현황과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2024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2023년 기준)' 결과를 4월 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해외 26개국 한국문화콘텐츠 경험자 2만5천명(국가별 표본 수 700~1,6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26개국은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카자흐스탄, 호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러시아, 튀르키예,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남아공 등으로, 조사 분야는 드라마·예능·영화·음악·애니메이션·출판·웹툰·게임·패션·뷰티·음식 등 한류 관련 11개 분야였다. 한류 경험자 10명 중 7명, 한국 문화콘텐츠에 호감

이번 조사에서 경험한 한국 문화콘텐츠가 전반적으로 마음에 드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마음에 들(호감)'으로 응답한 비율은 68.8%였다. 호감 비율이 높은 국가는 인도네시아(86.3%), 인도(84.5%), 태국·아랍에미리트(83.0%), 베트남(82.9%) 등의 순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호감도가 높았다.

1년 전과 비교해 자신의 한국 문화콘텐츠 관심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는 89.4%가 증가(45.9%) 혹은 비슷(43.5%)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증가 비율이 높은 국가는 이집트(67.6%), 인도(67.1%), 사우디아라비아(65.1%) 순으로 중동 국가에서 지난 1년간 한국 문화콘텐츠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에 대한 연상 이미지, 케이팝 7년 연속 1위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케이팝(17.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케이팝은 2017년부터 7년 연속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조사됐다. 그 뒤로는 한국 음식(13.2%), 드라마(7.0%), 정보기술(IT) 제품/브랜드(6.3%), 미용(뷰티) 제품(5.2%) 순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와 20대는 케이팝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23.1%, 20.8%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고, 40대와 50대는 한국 음식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13.6%, 17.4%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아 연령에 따라 한국 연상 이미지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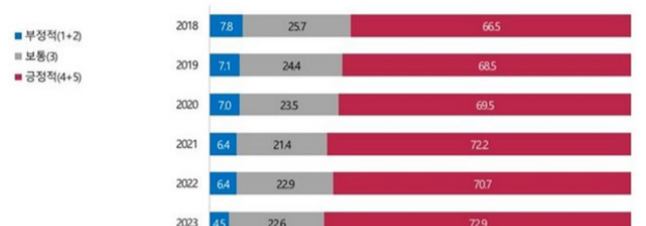
한국 문화콘텐츠 접촉 후 한국에 대한 인식 긍정적 변화 66.1%

한국 문화콘텐츠 접촉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긍정적으로 변화' 비율이 66.1%, '변화 없음'이 30.1%, '부정적으로 변화'가 3.8%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아랍에미리트(85.9%), 인도(85.3%), 베트남(84.7%) 등이 긍정적 변화가 크고, 일본(38.8%), 이탈리아(48.7%) 등이 낮게 나타났다.

한류 경험자의 1인당 월평균 한국문화콘텐츠 소비량은 11.6시간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인도(18.6시간), 태국(18.4시간), 인도네시아(17.0시간), 베트남(16.4시간) 등의 순으로 평균 소비량이 많았다. 반면 일본(4.4시간), 캐나다(5.8시간), 호주(6.2시간), 이탈리아(6.3시간) 등은 월평균 10시간 미만으로 나타나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량이 높은 국가가 한국 문화콘텐츠 접촉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비율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지에 대해 32.6%가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주요 사유로 '지나치게 자극적/선정적(24.9%)', '획일적이고 식상함(22.0%)', '지나치게 상업적(21.1%)' 등이라고 응답했다.

<오징어게임>, <기생충> 여전히 인기 속 <더글



Q. 귀하는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어떠합니까?
1. 매우 부정적 2. 부정적 3. 보통 4. 긍정적 5. 매우 긍정적

‘해외 한류 실태조사(2018-2023)’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인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로리)도 포함

한국 드라마 경험자들은 여전히 <오징어게임>을 가장 선호하는 드라마로 꼽았다. 응답 비율은 2021년 21.2%, 2022년 11.3%, 2023년 9.0%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1위를 차지했다. 2위와 3위는 각각 <더글로리(3.4%)>와 <김드랜드(2.6%)>로 조사됐다. <오징어게임>이 유럽(23.7%), 미주(8.3%)를 중심으로 인기를 보였다면, <더글로리>는 아시아·태평양(5.4%)에서 인기를 끌었다.

한국 영화는 5년 연속 <기생충(7.9%)>과 <부산행(6.0%)>이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기생충>은 유럽(10.7%)과 미주(12.6%)에서, <부산행>은 아시아·태평양(8.2%)에서 계속 인기를 끌고 있었다.

한류 경험자의 절반 이상, 한국 제품/서비스 관심 있어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산 제품/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살펴봤는데 한류 경험자의 절반 이상(50.7%)이 '향후 한국산 제품/서비스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이집트(75.6%), 사우디아라비아(73.0%), 아랍에미리트(72.9%), 베트남(72.1%), 인도(70.7%) 순으로 중동 국가와 아시아 국가의 관심이 높았다. 이와 달리 '구매의향 없음' 비율의 경우 일본(41.7%), 이탈리아(20.4%), 스페인(20.8%) 순으로 높았다.

제품/서비스별로는 식품(64.7%)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 방문(61.8%), 음식점에서 식사(61.4%), 화장품(54.0%), 의류 구매(52.8%) 등도 높은 소비의향을 보였다. 나아가 한류가 한국 제품/서비스 이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57.9%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81.4%), 베트남(78.6%), 사우디아라비아(74.5%)에서 높게 나타났다.

문체부, "케이-콘텐츠 기업 해외 진출 확실하게 지원, 연관 산업 수출 확대 견인"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케이-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확산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비즈니스센터 25개소까지 확대하고 일본에는 콘텐츠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업지원센터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동 내 케이-콘텐츠 관심이 최근 상승하고, 한국 제품/서비스 구매 의향이 높은 만큼 한국문화를 상시 홍보할 수 있는 상설 홍보관 '코리아(KOREA)360'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케이-콘텐츠 소비가 연관 산업 소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류 문화콘텐츠와 연관산업을 함께 선보이는 '케이-박람회'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쌍방향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콘텐츠 국제개발협력(ODA)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류의 인기가 높으면서 연관 산업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케이-콘텐츠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면 콘텐츠 수출과 함께 연관 산업의 수출까지 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 콘텐츠 소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도 비즈니스 센터 개소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케이-콘텐츠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사할린주 아동교향악단, 창립 25주년 기념 공연

사할린주 아동교향악단 창립 25주년을 맞아 공연을 개최하는 가운데 4월 24일(수) 체호브 사할린 국제연극센터에서 저녁 7시에 열린다.

연주 곡목에는 안토닌 드보르작, 조르주 비제, 요하네스 브람스, 요한 스트라우스 등 낭만주의 시대 외국 작곡가들의 작품들이다. 공연 관객들은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발레 중 <마주르카>와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발레 중 <무사들의 춤>, 아람 하차투란의 레르мон토프의 연극 <마스카라드(가장무도회)> 중 왈츠 모음곡을 비롯해 러시아 민요 메들리 등 여러 작품들을 들을 수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단원이자 블라디미르 스피바코프 자선재단의 장학생이며, 국제 경연 참가 수상 경력이 있는 티모페이 블라디미로브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에드바르 그리그의 포르테피아노를 위한 피아노 협주곡 연주는 깜짝 선물이 될 것이다."라고 주 문화부 논나 라브리크 장관이 전했다.

Сахалинский детски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даст концерт в честь своего 25-летия

На Сахалине детски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проведет концерт, приуроченный к своему 25-летию. Концерт пройдет 24 апрел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театральном центре имени Чехова в 19:00.

В программе заявлены произведения зарубежных композиторов эпохи романтизма: А. Дворжак, Ж. Бизе, И. Брамс, И. Штрауса. Кроме того, зрители услышат «Мазурку» из балета «Лебединое озеро» П. Чайковского, «Танец рыцарей» из балета «Ромео и Джульетта» С. Прокофьева, Вальс из Сюиты к драме

М. Лермонтова «Маскарад» А. Хачатуряна, поурри на темы русских народных песен и другие музыкальные композиции.

«Приятным сюрпризом станет исполнение концерта Э. Грига для фортепиано с оркестром с участием лауреат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курсов, стипендиата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го фонда В. Спивакова, участника программ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Дома музыки Тимофея Владимировича», - сообщила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Нонна Лаврик.

사할린, 근로자 체육대회 개최

4월 7일 세계 보건의 날의 일환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교육자 체육-스포츠 클럽 축제가 진행됐다고 사할린주 교육부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 장관이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전했다. 정다운 분위기 속에 사할린주 교육계 근로자 체육대회의 우승자들에게 시상했다. 교육부 장관은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서 기쁘다. 어서 열린 스포츠적 만남을 기대해보자!"라고 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 '네자부드카(물망초)' 제44호 유치원과 제1호 김나지야가 압도적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ла спартакиада трудовых коллективов

7 апрел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рамках Всемирного дня здоровья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физкультурно-спортивных клубов. Об этом в своем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сообщ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В душевной атмосфере наградили победителей областной спартакиады трудовых коллективов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Рада, что у нас появилось новое сообщество. С нетерпением будем ждать жарких спортивных встреч!»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Абсолютными победителями стали детский сад №44 «Незабудка» и гимназия №1.

<사할린 마라톤> 하프마라톤에, 사할린 주민들 참가 촉구

사할린 지역에서 <사할린 마라톤> 하프마라톤대회 등록이 시작되었다고 주스포츠부가 전했다. <러시아 연방. 마라톤>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의 일환으로 5월19일 아니와에서 하프 마라톤대회가 조성된다. <러시아 연방. 마라톤>은 가장 대중적인 대회로서 전 지역에서 15만 명 이상이 동시에 달리기를 시작한다. 2024년에는 8번째 전국적으로 이 스포츠 행사가 진행되며, 사할린주에서는 5번째 진행된다.

스포츠부는 "육상선수들의 참가 종목은 500m(7세-9세), 1km(8세-10세/11세-12세), 5 km(13세-17세/18세 이상), 10 km(18세 이상), 21.1 km(18세 이상)이며, 또한 발달장애인들은 1000 m코스에 출전한다."고 알렸다.

하프마라톤 참가자들과 방문객들은 음악 공연과 브레이크댄스 경연, 자동차 전시회, 행사 협력으로 상호작용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사할린 마라톤>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참가 인원은 한정돼 있다.

Островитян приглашают на полумарафон «Сахалинский забег»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тартовала регистрация на полумарафон «Сахалинский забег».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порта области.

Полумарафон состоится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полумарафона «ЗаБег.РФ» в Аниве 19 мая. «ЗаБег.РФ» - самый популярный старт, когда синхронно начинают бежать более 150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о всей стране. В 2024 году спортивное событие в стране пройдет в восьмой раз, а на Сахалине - в пятый. «Для легкоатлетов будут доступны дистанции в 500 м (7-9 лет), 1 км (8-10 лет, 11-12 лет), 5 км (13-17 лет, 18 лет и старше), 10 км (18 лет и старше) и 21,1 км (18 лет и старше), а также 1000 метров для лиц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 отметили в минспорта. Участники и гости забега смогут насладиться музык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ой, турниром по брейк-дансу, автомобильной выставкой, интерактивными площадками от партнеров мероприятия. Чтобы стать участником «Сахалинского забега», нужн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в онлайн сервисе.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ограничено.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4 год!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6 месяцев — 646 руб. 9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ME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 (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